



해마다 우리 마을에 천사들이 온대요~

창작극회 '천사는 바이러스'
노송동 미담 바탕으로 제작

창작극회가 오는 24일까지 '천사는 바이러스'를 선보인다. 작품은 전주 노송동에 해마다 기부 상자를 두고 가는 얼굴 없는 천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극이다. 무려 17년 동안이나 누군가를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주는 천사의 기부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온기를 지핀다. '천사는 바이러스'는 얼굴 없는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소통에 대해 이야기한다. 해마다 천사가 나타나는 노송동 마을에 사

공연은 24일까지

람들이 몰려든다. 언론의 청탁을 받고 천사의 뒤를 캐는 흥신소 직원 흥반장, 기부금을 노리고 야쿠르트 아줌마로 가장한 기다란, 그리고 천사가 기부금을 놓고 가는 자리가 가장 잘 보이는 고물상을 차지하려는 종세. 천사가 나타날 때가 가까워지자, 이들은 각자의 목표를 피하며 서로의 동태를 주시한다. 작품은 나와 너, 우리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공동체 가치가 바이러스 퍼지듯이 우리 이웃에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낸다. 조민철 연출가는 "남모르게 선행을 펼쳐온 그분의 숭고한 뜻이 호기심과 탐욕으로 다치고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 그 뜻을 높이 사고 그로 인해 선행과 행복이 전염되듯 퍼져나갈 수 있길 바란다"며 "그분으로 인해 보다 많은 천사들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 모두가 작은 천사가 되어 사람이 넘치고 이 추위로 녹여 낼 수 있는 훈훈한 전주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일요일 오후 3시. /정해은 기자



도립미술관 최수미 작가 '작은 집들'展

최수미 작가의 '작은 집들'전이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다. 그의 작업은 작은 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풍경을 만드는 부조형 도조 작품들로 구

성된다.

작가가 짓는 집은 하나보다 둘 혹은 네다섯이다. 덩치도 작은 것들이다. 그것들은 서로가 서로의 키를 재듯이 나란히 자리하거나, 언덕 위에 서로의 몸을 밀착해서 한 덩어리처럼 웅기종기 자리를 잡는다. 우리는 그것을 딱히 몇 개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는 '작은 집들'을 지으면서 그것들이 창출하는 삶의 에너지와 작은 집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이의 관계 지형과 서로의 만남의 관계를 천천히 성찰한다.

'작은 집'은 낮은 지붕과 짧은 처마 그리고 숨을 실만한 작은 창문을 가지고 있다.

어떤 집은 커다란 담벼락에 쓰러져 가는 자신의 몸을 간신히 기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집은 퇴락한 벽에 간신히 숨을 쉴 수 있는 작은 창문 하나만 내고 있기도 하다. 그런 집은 대개 우울해 보이고 쓸쓸해 보이는 표정을 갖고 있다.

작가가 짓는 집에는 이러한 우울의 이면에서 짙은 티우는 정겨운 삶의 소망이 묵도된다. 그러한 깨달은 무엇보다 작가가 짓는 '작은 집'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기 때문일 것이다.

작품 속 회화의 언어, 삽화적 여백, 동화적 메시지, 문인화적 명성이 풍부하게 실려있고 있다는 점은 작가의 작업이 지난 가장 큰 힘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도예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예과 대학원,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조형미술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9번째 개인전이며 다수의 기획 초대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대학미술대전 특선, 입선(2000), 한국공예대전 우수상(2003)을 수상했다. 현재 원광대학교 출강 중이다. 전시는 오는 25일까지. /정해은 기자

우울의 이면서 짙을 티우다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12월 셋째 주 상영작

한 버스운전사의 잔잔한 일상

〈패터슨〉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 4층)은 평온한 삶, 소소한 아름다움을 향한 찬가를 그린 집 자무쉬 감독의 '패터슨'을 12월 셋째 주 작으로 상영한다. 관객실문조사 결과반영작 '패터슨'은 미국 뉴저지 주의 패터슨 시에 사는 버스 운전사 패터슨의 잔잔한 일상을 그렸다. 영화는 '천국보다 낫선' '커피와 담배'를 연출한 세계적인 거장 집 자무쉬의 신작으로, 감독이 20여 년 전 초고를 완성한 뒤 틈틈이 이야기를 발전시킨 작품이다. 운전사로서 살아가는 패터슨이 자신의 노트에 끼적이며 시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통해, 평범한 일상을

〈고령가 소년 살인사건〉

결여된 희망 속 폭력에 빠지는 아이들

다른 시선으로 들여다보며 특별한 감성과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과정을 세심하게 담아내었다. 작품은 집 자무쉬 감독 특유의 위트와 세련된 영상미 그리고 독특한 음악이 어우러져 평온함 속의 낭만을 감상할 수 있다. 패터슨 역을 맡은 아담 드라이버는 집 자무쉬의 열렬한 팬으로서 시나리오 제안을 받자마자 조금의 고민도 없이 출연을 결심했다고 한다. 제9회 칸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으로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국내에 처음 선보인 이래 많은 영화마니아들이 개봉을 기다려온 작품이다. 또 다른 영화 '고령가 소년 살인사건'은 주말의 명화로 만날 볼 수 있다. '고령가 소년 살인사건'은 1960년대 대만을 배경으로 한 소년이 소녀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타이베이 이야기' '공포분



자'에 이어 '타이베이 3부작'의 마지막에 해당하며, 대만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미성년자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연출한 작품이다. 영화는 1960년 대만을 배경으로 불안한 시대를 사는 기성세대와 결여된 희망 속에서 폭력에 빠지는 소년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와호장룡'과 '일대종사'로 유명해진 배우 장첸의 뜻밖의 소년 시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고령가 소년 살인사건'은 거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위대한 에드워드 양'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라고 평할 정도로 인정을 받은 작품이다. 작품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237분이라는 긴 상영시간, 저작권 문제 등으로 인해 한정된 국가에서만 소수하게 개봉되었다. 이후 시네마테크, 영화제와 같은 곳에서 상영되어오다가 마침내 디지털 복원된 상영본으로 국내 정식 개봉을 확정했다. /정해은 기자

국내 한지산업 저변 확대 모색

한지아트페어 세미나
"전통성 부각시켜야"



국내 한지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대한민국 한지아트페어' 세미나가 21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전북도와 전주시, 전주한지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독특한 아트페어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글로벌 아트페어 트렌드와 전주한지 아트페어의 필요성'을 주제로, 이철규 예원예술대학교 교수가 기초강연을 했으며 박용근 전주한지문화축제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철규 교수는 "최근 양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아트페어가 내실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선 규모보다는 지역 특색에 맞으면서 작고 효율적인 형식의 아트페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점에서 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페어를 개최하게 되면 종이로 제작한 다양한 미술품 유통의 장이되면서, 종이미

술품의 주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한지의 주목도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급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한지는 해외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이나 국내에서 한지의 이미지에 대한 영향은 미비하다"면서 "더욱이 국내에서 한지는 원주, 안동 등 여러 지역에서 활용됨으로써 집중도와 이미지 메이킹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지의 국·내외 인식을 고려해 볼 때, 한지의 전통성과 예술성을 부각시켜야 한다"며 "한지의 본고장인 전주에서의 활성화가 시급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지 아트페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지 아트페어를 통해 한지를 특성화할은, 전주한지산업 발전에도 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행사는 전통한지 장인 및 관련 산업계, 문화계 관련 연구자 외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해은 기자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Happy Citizen, Proud Jeongeup!

제124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정읍동학마라톤대회

대회일자 : 2018년 2월 25일(일)
장 소 : 정읍종합경기장

- 접수기간 : 2017년 11월 1일 ~ 2018년 1월 24일
- 주최/주관 : 정읍시체육회 / 정읍시육상연맹
- 참가접수 : 정읍동학마라톤 홈페이지 신청
- 종 목 : 풀, 하프, 10km, 5km, 단체전
- 홈페이지 : www.jdmarathon.kr
- 연 락 처 : ☎063.537-4219 fax ☎063.537-4218

정읍시체육회 · 정읍시육상연맹